

은혜와 진리소식

2026년 1월 25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53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거듭하여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생활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 박 창 금 -

저는 종교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한 후에 안양에서 남편이 먼저 은혜와진리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남편의 인도로 저도 남편과 함께 교회에 다니며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안 사정이 어려워 제가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가끔 주일에도 회사에 가서 일하느라 종종 예배를 거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며 세상일에서 얻는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산시로 이사를 한 후에 동탄성전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상태였지만 주일예배는 꾸준히 참석하였습니다.

2010년 가을에 저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외동딸이 추석 하루 전날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때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상심이 커서 몇 달 동안은 집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종일 슬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저의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몸의 여기저기가 수시로 아프고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식사를 할 때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려다가 반찬은 집지 못하고 자꾸만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한의원에 갔더니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했는데,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이 조금 어눌하고 한쪽 팔이 약간 불편했지만,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큰 이상이 없는 상태로 퇴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 후에 두 번째로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증상이 심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신유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교구 전도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는 가지 않고 청심환만 먹고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일에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가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구역장님이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또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낮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예레미야 17:14)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펼쳐 신유와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일예배, 주중 예배와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신유를 위한 기도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아주대 병원에 갔습니다.

미리 검사 예약을 한 사람과 입원 환자가 많아서 예약조차 쉽지 않았는데, 때마침 환자 한 명이 예약을 취소하여 제가 먼저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 부정맥 진단과 함께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시간을 기다리면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수술과 치료가 성공적으로,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숨이 가쁜 등의 증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비교적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병을 낮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새삼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힘써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생을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룩하고 복된 소망을 가지고 세월을 아껴 예배하고 전도와 봉사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당1로 144 T. 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로 41번길 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3권 (6단원 : 믿음의 사람들)

(제34과)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라합

- 본문 : 여호수아 2:1-21

• 요절 :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상천 하지에 하나님 이시니라”(수 2:11)

• 찬송 : 369장(새찬송가 218장), 378장(새찬송가 597장)

라합은 본래 여리고 성에 살던 일개 기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와준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 중 하나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게 된 까닭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는 장에서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히 11:30~31)는 말로써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필요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유익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1.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놀라운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소문의 내용인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출애굽 하였으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시고 지내왔으며,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멸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은 자기 주막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이러한 소문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아마 그녀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문들이 사실임을 알게 되자, 그녀는 점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상천 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지요, 그 외의 다른 신들은 다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이 그녀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두 정탐꾼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수 2:9)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라합의 신앙 고백은 그녀가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하신 대로, 사람이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라합이 당시 풍문으로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줄 때 이를 듣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2. 라합은 행함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라합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데 그치지 않고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두 정탐꾼이 그녀의 집에 들어왔을 때, 라합은 그들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첩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고

또 여리고 왕이 그들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는 안전하게 숨겨주고 무사히 도망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라합은 일이 탄로날 경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능히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녀가 행함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서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 2:25~26)라고 함으로, 라합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표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라합과 같이 행함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의 연조가 오렐수록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함으로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직분을 갖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그런 사람의 신앙은 마치 성장을 중단한 고목 나무와 같아서 신앙 생활의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그 가르침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바 진리에 따라 행하기 위하여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고자 할 때 믿음의 위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 모두 라합처럼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3. 라합은 구원과 더불어 기대에 넘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6일 동안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제칠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고 나서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울리자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견고하던 여리고 성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물밀듯이 들어가 여리고 성의 모든 거민과 가족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라합과 그에 속한 친지들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을 보전하였습니다.

이는 전에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선대하였을 때 그들이 약조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수 2:18) 한 그대로, 라합이 성벽 위에 있는 자기 집의 창에 붉은 줄을 매어 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라합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함께 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라합에게 그녀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은총을 더하여 주셨으니 곧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함으로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어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마 1:5~6). 이는 그녀가 비록 천한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신분을 보시지 않고 오직 행함 있는 믿음을 보셨음을 증거해 줍니다.

라합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용기있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광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행함있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